

LOCAL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해남 대표쌀 ‘땅끝햇살’ 일본 수출물량 완판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명품천일염 무사고·풍년기원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는 최근 천일염 첫 생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명품 천일염 생산과 무사고, 천일염 풍년을 기원하는 천일염 재염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와 김강현 영광의회 의장, 강명수 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천일염생산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개최된 염산면은 ‘소금’이라는 지명을 가진 지역이며, 천일염 생산에 있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칠산바다를 품은 청정 갯벌과 알맞은 해풍,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물과 갯벌로 인해 고품질의 천일염을 자량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영광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명품 천일염 생산으로 명품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
완도, 내달부터 전국 첫 시행

완도군은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섬 주민 해상 교통 복지 증진과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여객선 승선권 발급 시 신분증을 제시하며 무료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이 육지 출다. 여행 시 해상 교통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현지 소비자 호평...초도물량 2t 이어 20t 추가 예정
군, 브랜드 가치 향상...장기 수출 기반 조성 등 계획

해남군의 대표 쌀 브랜드 ‘땅끝햇살’이 일본시장에서完판되며 수출 경쟁력을 입증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햇살은 3월 처음으로 일본에 2t을 수출, 해당 물량이 현지에서 전량 판매됐다. 땅끝햇살은 지난 2015년 브랜드를 출원하고, 2016년 상표 등록을 완료한 해남군 대표 브랜드 쌀

이다.

특히 현지 인기에 힘입어 4월에는 10t이 추가로 선적된 데 이어, 향후 10t을 추가 수출할 예정에 있는 등 일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해남쌀의 고품질과 특유의 밥맛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쌀 품질에 민감한 일본



에 수출 확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땅끝햇살은 해남군에서 재배되는 국산 육성 품종 ‘새청무’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시장에서完판을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참지고 윤기가 흐르는 밥쌀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호평 속

쌀로 국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해남군은 일본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 선호를 고려한 품질관리와 현지 밀착형 홍보 전략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 성과를 계기로 현지 유통업체와 협상 폭도 넓혀 수출 물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일본 수출은 해

남쌀의 품질과 상품성을 국제 시장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며 “농가와 협력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수출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쌀은 2024~2025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6개국에 총 1383t, 29억 5400만 원 규모가 수출됐다. 이번 일본 수출을 기반으로 해남군은 다양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넓혀가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갈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나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최근 시청 사회의실에서 ‘영산강 친환경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나주-영산강청 ‘맞손’

물순환 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다짐

나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최근 시청 사회의실에서 ‘영산강 친환경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물순환 체계 구축에 따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우수 자연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협력한다.

영산강변 생태계 보전과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확충에도 힘을

모든다.

시는 지난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2024 나주영산강축제 현장에서 ‘영산강이 주는 선물관’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영산강의 생태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1회용품 없는 축제를 구현하며 방문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올해도 2025 나주영산강축제 기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친환경 축제 문화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영산강의 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기초 지자체 간 첫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주시와 협력할 것이다”며 “영산강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친환경 지역축제를 문화 확산 등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영산강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김영우 청장께 감사하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경험을 통해 영산강이 물순환, 생태계 보전적 기능뿐 아니라 지역을 살찌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강진 월남사 불경, 전남도 유형유산 지정

12~13세기 고려 중기 불교문화 사료

강진군은 성전면에 위치한 월남사가 소장하고 있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권제16’이 전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권제16’은 고려 중기인 12~13세기 당시 지방관이었던 김강정이 발원해 백자에 직접 필사한 불교 경전이다.

보현사 주지 월원이 이를 교정했다는 사실이 권말에 기록돼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사경(寫經)의 제작 방식과 당시 불교계 인물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해당 불경은 초조대장경을 저본으로 필사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백지묵서본이며, 보관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고려대장경 인쇄본과는 다른 시간본 형식으로 현재 남아있는 동일 경전류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권말에 기록된 ‘을사년’ 필사 연대는 향후 정밀 연구를 통해 고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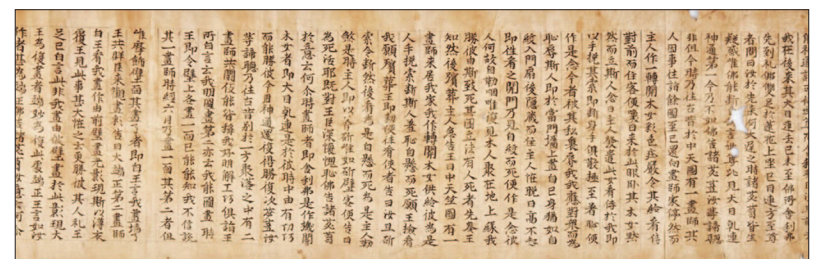
대 사경 연대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월남사는 백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고찰이다. 전각국사 혜심이 중창하고 최초 무인정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역사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사찰이다.

강진군은 이번 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월남사지 주변 관광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월남사 건물지 중창을 비롯해 도량의 완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월남사 일대를 생태관광과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문화유산 지정은 단순한 보존 차원을 넘어 강진의 역사적 위상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권제16 5장

배전선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참여 수요조사 안내

기간 : '25. 4 ~ 5월 중

대상 : 배전선로 접속예정 신재생 사업자
- 기존 수요조사 시 미확신 및 무응답 사업자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특성 고려 배전선로 접속기준 초과 접속 후 발전량이 과다한 시간에 출력을 제한
- 발전기 감시제어 설비 설치, 우선 출력제어 등의

참여방법

- 수요조사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기한내 관련 서류 (동의를, 안내문)에 자필 서명하여 회신
- 회신이 없는 사업자의 접속예정(대기) 순서 유지
- 단, 위 접속제도에는 ‘미참여’로 간주하여 후순위 희망 사업자에게 발전기 접속 기회 제공 예정

고흥군 공고 제2025 - 816호

석정지구 새공도시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석정지구 새공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고 흥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명: 석정지구 새공도시 조성사업

나. 시간적 범위: 2023 ~ 2027
다. 공간적 범위: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 124번지 일원
라. 사업면적: 76,571㎡

2. 공람기간-장소

가. 공람기간: 2025. 4. 28.(월) ~ 2025. 5. 29.(목)

나. 공람장소: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다. 정보통신망: 고흥군 홈페이지(https://www.goheu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2025. 5. 15.(목) 13:30 성지마을회관

4.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5. 6. 5.(목)까지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다. 제출서식: 주민의견제출서(붙임)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061-830-5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수입차 정비전문 특급업체 - (주)에스지모터스

... 최고수준의 전문 기술력과 정비서비스 / 최신키오샤 빌딩까지 ...

www.blog.naver.com/k391054

최신식 시설
OPEN
시설대비 전국 최고 가성비

수입차정비 일반 정비 및 점검·도색

- 선진국형 친환경 수용성 도장 시스템
- 수입차 정비 전문교육이수

사고수리·엔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교환

(주)에스지모터스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672번길 8(지마동)
TEL ☎062)515-1112